

## 베트남 전쟁이 한국군에 주는 교훈

홍규덕\*

1. 머리말
2. 베트남전이 갖는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특징
3. 베트남 참전이 우리 군에 주는 의미
4. 전략적 교훈: 끝나지 않은 도전
5. 맺음말

### 1. 머리말

베트남전쟁은 20세기 현대 국제관계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전쟁이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으로, 사망자 120만 명, 부상자 약 300만에서 400만을 추정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기록했다. 아직도 전쟁에 참가한 당사자들과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들과 비교가 된다.

또한 베트남전쟁은 TV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 안방 깊숙이까지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전쟁의 참상을 전달한 최초의 전쟁이며 미디어가 전쟁수행 방식과 지속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up>1)</sup>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전쟁의 의미와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국가이익과 윤리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베트남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sup>2)</sup>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쟁행위에 대한 반전 및 평화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조직적 연대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며, 평화연구가 새로운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전에 이어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도미노를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으로 참전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1954년 디엔 비엔 푸 함락 직전 프랑스 정부가 미 아이젠하워 정부 측에 즉각적인 군사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건부 파병의사를 밝혔다.<sup>3)</sup> 물론 이러한 제안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 미 합참의장인 레드포드 제독에 의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볼 때, 당시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협정을 마무리하고 있던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최초 논의된 병력의 규모가 10년 후 실제 파병 때와 유사한 3개 사단과 그 외 작전지원 병력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1) Marshall McLuhan, "Television brought the brutality of war into the comfort of the living room. Vietnam was lost in the living rooms of America-not on the battlefields of Vietnam", *Montreal Gazette*, May 16, (1975).

2) Chalmers Johnson, *The Sorrows of American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Metropolitan/Owl Book), 2004.

3) George McT.Kahin, *Intervention: How America became Involved in Vietnam*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1987) p. 42.

파병의지를 선보인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군사혁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조속한 민정이양을 촉구하는 미 대통령에게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결심할 경우 언제든지 파병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는 것은 이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보 동향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4)</sup> 결국 미국은 존슨 행정부 취임이후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심하게 됐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나 홀로’ 개입이 아닌, 뜻을 함께 하는 우방국들(coalition of the willing)과 함께 개입을 모색하게 되면서, 그 선봉역할을 한국이 앞장서서 자임하게 됐다. 당시 미국의 상황판단은 확고했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 입각, 베트남에서 공산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동남아 및 남아시아, 멀리 중동으로 연계되는 초승달과 같은 전 지역(rim)에서 도미노 현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세력은 매우 위험하고, 팽창주의적이며, 이들이 중주국 소련과 고도의 연계성을 갖고 세 불리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sup>5)</sup> 결국 미국과 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대상이 됐고, 미국은 한국군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작전 지원과 정치 및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내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대되면서 냉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깨지게 된다. 결국 중국과

4) 이승만 대통령의 파병 제의의 핵심은 우리 군의 병력을 20개 사단에서 최대 35개 사단까지 추가 증원을 승인하는 조건에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육군본부 작전 부장을 역임했던 박정희 장군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미군의 비공식 파병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미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베트남 파병은 미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밝힌 첫 논문이 홍규덕의 학위논문이다. Kyudok Hong, *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1).

5) 전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룬 7가지 가정에 대해서는 참조. Howard Bliss and M. Glenn Johnson, *Beyond Water's Edge: America's Foreign Policies* (New York: J.B. Lippincott Company, 1975), pp. 3-7.

소련을 분리 접근하는 키신저의 새로운 전략이 작동하면서, 한국군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잃게 된다. 한국군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해외에 파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개입했고,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양산했지만, 당시 내린 참전 결정은 한국의 전투력 강화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의 급속성장을 견인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다.<sup>6)</sup> 아직도 대다수 참전자들이 70대 후반으로 생존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6년 5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하노이 방문을 통해 베트남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미·베트남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엔 쉰언 총리는 캄란 만 항구를 미 해군이 기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7)</sup>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베트남의 변신은 그야말로 역동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23일 저녁 서민들이 즐겨 찾는 “분짜 흐엉 리엔”이라는 식당을 찾아 허름한 의자에 앉아 쌀국수 외고를 벌이는 장면은 많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sup>8)</sup> 과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지만, 6달러짜리 저녁을 먹고, 계산도 자신이 하면서, 식당 안쪽에 있는 베트남인들과 함께 휴대전화 사진을 찍는 미 대통령의

6) Stephen Eric Noerper, *The Tigers Leap: The Korean Drive for National Prestige and World Approval* (Unpublished Ph.D. Disseration,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1993).

7) 이승헌 “오바마 TPP는 미-베트남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 「동아일보」 (2016-05-25)

8) 이승헌, 「동아일보」 (2016-05-25)

격의 없고 겸손한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저녁 전, 베트남 시민 사회 대표 6명을 만나 베트남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미국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동맹국 한국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반미주의가 베트남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 정부와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베트남은 전 세계 한류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의 하나로 매년 한국어 검정시험을 치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 협력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평화유지군 파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베트남군의 새로운 도전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sup>9)</sup>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이 베트남 쩌엥 띵 상 베트남 주석을 예방하기 전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주석 묘소를 방문, 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호주석의 묘에 헌화를 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약속하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전은 이미 반세기 전에 끝이 난 전쟁이지만, 군사적으로 여전히 그 중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에 대한 교훈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미 합참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리아 사태에 따른 ‘회색지대 갈등’(Gray Zone Conflicts)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sup>10)</sup>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나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9) 한국과 베트남은 2015년 9월 11일 제 4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2015-09-11);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은 사이버 안보 분야 및 상호 국방 분야 교육교류 증진, 방산협력을 제고하기로 했고 특히 한 베트남 상호 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추진 중이며 풍광 타이 국방장관은 한국의 불발탄 지뢰 제거 협력 사업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중, “한·베트남 본격 국방협력 시대 개막”, 「국방일보」 (2015. 05. 28).

10) gray zone conflicts 즉 회색지대 갈등은 Michael Mazarr 교수가 Army War College에서 발간하는 저널에 기고한 내용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를 활용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도발 유형을 지칭하고 있음.

이란이 파견한 레바논 출신 또는 이라크 시아파(Shiite) 출신 민병대는 전쟁의 양상을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전의 교훈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sup>11)</sup>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과거 베트남전에서의 교훈 분석은 매우 소중하다.

베트남 전쟁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한 유일한 전쟁이다. 물론 미국의 화력 및 작전 지원 하에서 치른 전쟁이지만 만 우리가 전개한 작전개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래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사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철군과정에서 나타난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은 여론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준 전쟁이다. 유엔의 영향력 밖에서 미국이 치른 최초의 전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밖에서 치른 외롭고 험난한 전쟁이었다.<sup>12)</sup> 당시 미국이 소련과 중국 및 비동맹 국가들은 물론 유럽의 주요 우방들을 어떻게 다루며 설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키신저가 주도한 파리 평화협상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치른 값비싼 대가는 아직도 역사가들의

---

David Ignatius, "The next president will face tricky military questions",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military-tests-for-the-next-president/2015/12/31/ac43af\)e-af07-11e5-b820-eea4d64be2a1\\_story.html](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military-tests-for-the-next-president/2015/12/31/ac43af)e-af07-11e5-b820-eea4d64be2a1_story.html)

11) Ibid.

12) Eric V. Larson, *Casualties and Consensus: Historical Role of Casualties in Domestic Support for U.S. Military Operations* (Santa Monica, CA: RAND, 1996); John E. Mueller, *War, Presiden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3), pp. 60-62; 물러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여론은 전상자가 매 10% 이상 발생할 때마다 15% 이상 지지도가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Stephen T. Hosmer, *Constraints on U.S. Strategy in Third World Conflicts*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1987) p. 68.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리 평화협정이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교훈을 정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가시화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베트남전 종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베트남전의 국제정치학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군이 관심을 가져야 할 베트남 참전의 의미를 다음의 6가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1) 한·미간의 동맹관계 특히 군사적 관계에서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 군조직의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3) 우리 군의 작전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베트남전의 경험은 지휘체제의 통합에 대한 확신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날 우리 군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과거 우리 군의 대반란전(COIN)에 대한 공과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의 현대적 중요성을 감안, 베트남전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6) 우리 군의 참전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관한 비판적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바라보는 일부 수정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셋째, 베트남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들을 9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베트남 파병 5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3) 참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베트남전쟁 학술세미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십자성 작전의 재조명』 (2016. 5. 19)

## 2. 베트남전이 갖는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특징

첫째, 베트남전은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오던 초강대국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유럽과 일본을 축으로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력 소진은 초강대국 미국으로 하여금 ‘힘의 정치’(power politics)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1971년 경험한 달러의 위기와 1973년 OPEC의 도전으로 인한 석유공급의 차질, 그리고 Group 77이 주도한 신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대한 요구 등은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세계’(complex interdependence)로 이전하는 ‘패러다임의 이동’(paradigm shift)이 불가피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신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4)</sup>

둘째, 베트남전은 미국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좌절과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2차 대전 이후 한국전에 이어, 곧바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여 엄청난 희생과 막대한 전비를 감수했음에도 승리를 구하지 못한 역사상 유일한 전쟁이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반감은 지도층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했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낳았다. 베트남전쟁은 미국 국내사회를 분열시켰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참전자들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으며, 결국 해외개입에 대한 반성과 수정주의(revisionism)의 열풍은 ‘베트남 신드롬’(Vietnam syndrome)을 낳아, 새로운 국가목표에 대한 합의가

14) Karl W. Deut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78), Robert O. K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MA: Little, Brown, 1977),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Longman, 2000) 도이치, 코헤인, 나이 등은 한스 모겐소가 주장했던 ‘힘’(power)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호의존의 세계의 출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며, 즉 국경 넘어서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문의 조류를 여는 데 앞장서 왔다.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sup>15)</sup>

셋째, 베트남전쟁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국민총생산이 불과 100불도 되지 않는 아시아의 작은 피식민 국가 간의 전쟁이란 점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소위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던 약육강식의 논리, 즉 평화의 논리가 강자의 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흔치 않은 역사적 사례를 제공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멜로스의 대화」편에는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반면, 약자는 항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The strong do what they can,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구절이 있지만, 베트남전은 절대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전략적 비전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력요소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확고한 지도력 하에 결집될 때,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힘의 우위와 체제가 주는 제약요인만을 강조한 반면, 특정 국가가 갖는 국내정치적 역동성(inner dynamics)이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sup>16)</sup>

넷째, 베트남전은 전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게릴라전(guerilla warfare)의 등장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게릴라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구분이 어렵고, 양민들 속에 게릴라들이 쉽게 침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공산세포들의

15) 국민적 합의가 깨지게 되면서 수정주의 학자들의 비판이 대폭 확대됨. Harry Magdoff, Gabriel & Joyce Kolko, Robert James Maddox 등은 미국의 개입을 결정짓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모순과 수출시장의 확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으로부터 설명하기 시작함. Harry Magdoff, *The Age of Imperialism: The Economics of U.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9); Joyce Kolko, *American and the Crisis of World Capitalism* (Boston, MA: Beacon Press, 1974).

16) Donald Kagan, *The Outbreak of the Peloponnesia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 유럽의 열강 프랑스군도 베트남(베트남 독립동맹)의 독특한 군사전략과 다양한 테러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군 철수 이후 개입한 미국 역시 게릴라전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을 세우고, 그린베레(Green Beret)와 같은 특수전 부대를 창설, 투입했지만 효과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미흡했다.

미국은 1967년 ‘민간 구호 및 지방개발 지원단’(CORDS: Civil Operations and Rural Development Support)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평정사업을 군의 지휘 하에 통합함으로써 효과를 보았고, ‘불사조 계획’(Phonix Program)과 같은 새로운 비밀정보전을 전개,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시도하여, 약 8만 명 이상의 베트남들을 생포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약 50만 명에 달하는 민병대를 조직, 각 마을에 공산분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노력을 전개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성과를 보았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섯째, 베트남전은 정글과 열대 기후 속에서 치른 전쟁이다 보니, 전쟁의 양상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보호할 주요 산업시설은 거의 전무했고,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지키는 것이 적의 영향력 확대저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은 적의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및 격멸’(search and destroy)작전에 주력했다. 도로망이 부족하고 열대림과 같은 자연적 장애물이 많은 상태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 즉 베트남의 기습공격에 노출될 경우가 많았다. 지상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한 ‘공중기동’(air-mobili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했고, 적의 은닉이 가능하고 동시에

작전에 장애가 되는 정글을 파괴하기 위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와 같은 강력한 화학 제초제들을 공중 투하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1965년 이후 대규모 공중폭격이 시작되었고, 이는 하노이 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특히 파리평화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고엽제의 과다사용은 노출된 우군 병사들은 물론 투하지역의 많은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로마교황청과 각국 시민사회나 반전단체들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섯째, 베트남전쟁은 3년 만에 일단락된 한국전과는 달리, 거의 10배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전에서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중국군의 직접적인 참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 채 전쟁을 수행했다. 결국, 중국과의 직접적인 조우는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17도선 이북의 공격목표들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막상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군수지원 외에는 지상군 투입을 단행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한 호치민은 소수의 군사지원단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자력에 의해 전쟁을 치렀다.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북 베트남 공산 혁명분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 하노이 등 주요 전략목표들에 대한 지상군의 투입 없이 공중 폭격에 의존한 전쟁은 결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결국 중국의 지상군 개입을 염두에 둔 한국전에 대한 교훈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일곱째, 베트남전은 초강대국 미국이 엄청난 피해 속에서도 전략핵 무기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시작한 해에 베트남전에 개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자극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으며 자칫 소련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북쪽의 경우에도 항상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둔 제한적 조치임을 강조해왔다. 1954년 제네바 회담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염두에 두지 않던 미국은 주로 소련과의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1969년 이후 닉슨과 키신저는 소련과의 '전략 무기제한협정'(SALT)을 추진함으로써,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고, 중국과의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트루먼 정부 이후 적용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일률적인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의 키신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평화협상에 하노이당국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게 될 만큼 변화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키신저는 공산주의자들은 국경을 초월해 모두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확고한 가정(assumption)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중국과 소련의 경쟁관계를 활용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이 항상 지지일변도 만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 데탕트를 통한 창의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여덟째, 베트남전은 베트남의 영토를 벗어나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치러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라오스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1961년 당시부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공산주의자들인 파테트 라오(Pathet Lao)에 대한 비밀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연결된 '호치민 트레일'이 군사적 침투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라오스 내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라오스 지배세력에 대한 반감을 활용, 그들을 중심으로 '반란지원정책'(pro-insurgen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베트남전 종전 후, 이들 몽(Hmong)족들은 미국으로 이주

시키게 되었다.<sup>17)</sup>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사주, 반공을 표방한 론 놀(Lon Nol)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캄보디아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 캄보디아 내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세력은 집권 후,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학살을 단행했고, 결국 100만이 넘는 인구가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폴 포트(Pol Pot)의 명분하에 학살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하노이 당국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쟁기간 내내 캄보디아와 라오스지역에 대한 폭격을 시도했고, 2차 대전당시 투하했던 전체의 양보다 많은 폭탄들을 투하함에 따라 캄보디아인들과 라오스인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아홉째, 1975년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즉각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오랜 기간 전쟁을 벌였다. 이는 민족해방전 수행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피해 당사자 베트남이 가해자가 되어 인접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힘과 국가이익에 관한 현실주의자들의 가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수정주의자들의 역사해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지역맹주로서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불사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던 베트남군 역시 캄보디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탈영자가 속출했고, 사기는 급격히 떨어져 갔다.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늘어난 전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제재조치는 베트남경제와 외교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은 사회주의 국가끼리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17) Timothy N. Catsle, *At War in the Shadow of Vietnam: U.S. Military Aid to the Royal Lao Government 1955~1975*(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 연대를 갖고 공산혁명이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공동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통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결코 이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3국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관계와 반목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라오스 역시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서 독자적 행보를 걷기 어려웠다. 또한 친중 노선을 표방한 크메르 루즈 정부에 대한 베트남의 침공행위를 징벌하기 위해, 중국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소위 ‘교훈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전은 중국으로부터 1,000년간의 지배를 받은 베트남인들의 역사관에 대해 서방세계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3. 베트남 참전이 우리 군에 주는 의미

첫째, 베트남전은 한국이 대규모로 파병한 역사상 유일한 해외전쟁이었다. 연인원 32만, 최대 5만에 가까운 병력이 64년부터 73년까지 8년 반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전투에 임했지만 병력에 관한 자체 조달 이외에 군수지원이나 무기, 탄약, 전투수당 등 모든 작전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미측이 해결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동맹의 범주 내에서 진행된 전쟁이다. 당시 호주가 총 7,000명, 태국이 11,000명인 점으로 볼 때, 최대 50,000명이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의 존재감이란 것은 상당했다. 특히 당시 주베트남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군의 지휘관인 채명신 사령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며, 박 대통령이 수차례 한국군을 자신의 지휘 하에 맡겨 든든하다고

했지만 동등한 조건하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전개하도록 양국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군의 역량이 자신이 6.25 당시 한반도 전선에서 경험했던 수도사단이나 9사단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투력과 조직력을 갖춘 우수한 부대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군이 미군이 사용한 미 육군 교본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군대라 연합작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한국군 지휘관들과 참모진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이는 파병 전 한국군의 활용가치에 대해 미국 지휘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더욱 중요한 평가이다. 무엇보다도 한·미간에 일방적인 지원 내지 수혜를 받는 관계에서 쌍방향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됐다.<sup>19)</sup> 이는 일부 용병 논쟁에도 불구하고, 맹호, 백마 부대의 전투 역량을 미측 지휘부로부터 높이 인정받게 된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웨스트 모얼랜드 사령관은 그의 비망록에서 청룡부대에 대해서도 비록 지휘문제가

18)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 (New York: Dell Book, 1976), pp.336~337.

19) 크리스토퍼 램은 대리전을 치르는 프락시(proxy)와 동맹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스 포터와 제임스 로치도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동맹군으로 봐야 하며, 결코 대리전을 치른 프락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리 토마스도 용병이란 자국 시민이 아닌 경우나 정부의 공식적 지원 하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군 정규조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듀너도 강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대리전으로 오해를 받기 쉽지만,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opher Lamb, "The Nature of Proxy Warfare", in William J. Taylor, Jr and Steven A. Maaranen, eds. *The Future of Conflicts in the 1980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82), p.347.; Bruce D. Porter and James G. Roche, "Coalition Defense and Cooperative Forces in the Third World: Report of a Rand Conference", March 14-15, (Santa Monica, CA: RAND, 1985), p.82.; Gary S. Thomas, *Mercenary Troops in Modern Africa*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2.; Bertil Duner, "Proxy Intervention in Civil War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18:4 (1981), p.358.

있지만 주어진 지역 방어 임무에 관해서는 만족스럽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0)</sup> 이는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미국이 해외 지역에서 한측과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 참전은 미국의 해외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3국 협력의 표본이 됐다.

둘째, 우리 군이 직업군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 회복이다. 군사혁명 이후 후속 쿠데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군은 자칫 정치적 영향력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파병은 군을 전투 본연의 목적에 동원하게 됨으로써 장기간의 파병과정을 통해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회였다. 베트남전 참전은 모든 장교들에게 기회가 됐다.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파병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참모들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전 장교단이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게 됐으며, 우리 군이 좀 더 프로페셔널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군 장교들의 입장에서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보다는 본연의 작전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위험을 안고 가야 했지만 참전 경험은 진급과 승진에 도움이 됐고 참전을 통해 받는 수당은 당시 봉급 수준에서 볼 때,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다. 무엇보다도 군은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소중한 전투경험을 쌓게 됐으며, 부대 운영방식부터 경계임무, 교육과 훈련 및 작전지원 역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신지식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새로운 장비들의 도입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군 현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파병은 건설, 물류, 항공 및 수송 등 사회 전반의 특수로 이어졌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20)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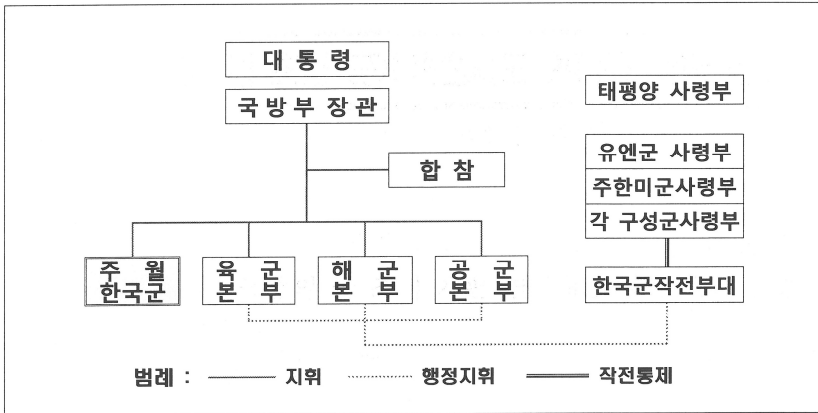
트렌드로부터 한국사회는 예외가 났으며 국민적 지지를 참전 기간 내내 유지했고, 따라서 적지 않은 사상자 수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도 매우 높았다.

수많은 소규모 단위의 전투경험들을 통해 우리 군이 전반적인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은 가장 큰 소득이다. 물론 참전 기간 중 복의 도발도 확대됐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한 지휘관들은 전상자 및 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전상자를 줄이기 위한 한측의 과도한 화력지원 요구에 대해 미측이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철수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 한국군 부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전상자 발생이 국내 여론을 자극할까 염려해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부대배치를 고려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sup>21)</sup>

셋째, 우리 군이 주베트남 한국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최초의 합동군으로 부대를 운용했다는 점은 군의 지휘계통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통령이 통수권 행사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직접 미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애초 박 대통령도 미군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미국의 청부전쟁 내지 용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당시 채명신 사령관은 작전 지휘권은 반드시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최초로 합동 기동 부대형 사령부를 베트남에 설치, 작전에 임했으며, 각 군 본부와 병렬적 관계에서 사령관 중심으로 작전에 임하게 했다. <표 1 참조>

21) Ibid.

〈표 1〉 '65~'72 월남 파병당시 한국의 국방체제



출처 : 주월 한국사와 '70년대 초반 군제개편시도 의미에 대한 참고보고, 2011.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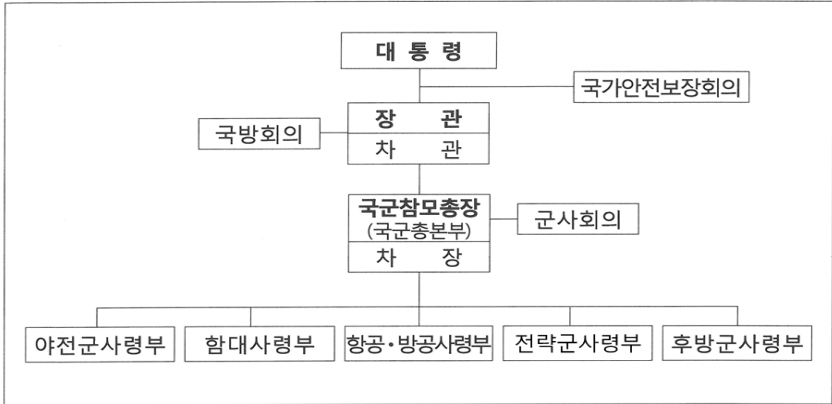
지휘 계통의 단순화는 향후 군 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이상적 모델로 연구 검토의 대상이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1969년 1.21 사태 당시 북의 124군 부대 특공요원들의 청와대 기습이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군의 기강을 새롭게 다지고 보다 효율적인 작전 역량을 보장하는 군 조직의 개편을 검토했다. 특히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재개되고 대한군사원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주 베트남 사령부의 철수도 염두에 뒀다.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군 특명 검열단 설치를 명하고, 1969년 5월 김희덕 장군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김희덕 장군은 3군 병립제를 국군 참모총장제로 전환하는 연구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발상으로 합참을 모체로 국군총참모부를 설치하고, 해병대와 공수부대는 전략군 사령부에 흡수하고, 각 군 예하 사령부는 작전사로 개편하고, 각 군의 보안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하여 장관

직속으로 둔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희덕 장군은 최초 준비단계에서는 각 군 본부를 축소개편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기능 및 지원부대들을 통합하고, 마지막 최종단계에서는 각 군 본부를 해체하는 통합계획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각 군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각 군 본부를 축소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조차 설득이 힘들었고 통합군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우려가 해군과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해병대를 없애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있어 심각한 저항을 초래했다. 김희덕 장군은 1971년 6월 25일 단행본 8권 분량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려 했으나 당시 정래혁 국방장관 등은 군내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시 유신 정국 하에서 군의 동요가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보고는 유예되고 말았다. 당시 군제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했을 경우 지휘통솔이 원활하고 병력을 약 10만 정도 감축함으로써 예산상 30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내 정치적 여건과 관련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sup>22)</sup>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효율성 확대를 염두에 둔 군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각 군 본부의 해체라는 파격적인 안<표 2>은 그 후 후속 국방개혁이 검토될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지만 북한처럼 통합군으로 가는 것이 전투에 더 효율적이라는 실용론이 헌법에 보장된 삼군병립제의 근본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2) 장경석, 「주월 한국군사와 70년대 초반 군제개편시도의 의미에 대한 참고보고」, 『국방개혁실 내부문건』, 국방부: 국방개혁실 개혁총괄기획관, 2011. 8. 22.

〈표 2〉 최종단계(각 군 본부 해체, 완전통합)



출처 : 주월 한국사와 '70년대 초반 군제개편시도 의미에 대한 참고보고, 2011.08.22.

넷째, 베트남전은 채명신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을 탄생시켰다. 그는 6.25 당시 황해도에서 유격대를 이끌면서 체험한 소규모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전개념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작전 개념은 미군과 달리 적의 인민전쟁 전술의 근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즉 게릴라와 인민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중대단위 전투 작전개념의 효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채장군은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의 중대 단위 전술개념은 주둔지 근처의 마을을 중심으로 기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최대한 근접 지원함으로써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군의 근거지를 차단하고, 적이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sup>23)</sup> 한국군은 주둔지 주변 마을에 대한 민사 작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쓰고,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마을의 주민들의 권유로 반군 활동에 가담한 병력들의 귀순을 유도하는 등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 적정을 파악하는 데도 큰 효과를 봤다. 이러한 한국군의

23)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 263-265

접근 방식에 대해 웨스트 모어랜드 사령관도 그 공로를 인정한 바 있다.<sup>24)</sup> 한국군의 작전은 특히 미국은 대대급 이상의 병력을 동원, 화력과 공중지원에 의존한 “탐색 및 격멸”(search and destroy) 작전에 주력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군은 부대 주변의 매복 작전을 통해 접근하는 적을 차단하고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더 큰 승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민심리전에 입각한 대반란전(COIN) 전략은 군의 전통으로 계승이 되어 우리 군이 1993년 이후 재개한 해외 PK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라크 내 아르빌에 주둔한 자이툰 부대의 경우 민사작전 및 재건지원에 집중해 많은 효과를 봤고 이점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나 교육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 아르빌에서 우리 군은 주둔지 인접 마을의 치안확보, 민심확보, 재건지원을 3대 추진과제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 속에서 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sup>25)</sup> 이는 채명신 사령관이 베트남전에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며 이후 우리 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기본적인 보건시설을 설립하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식수를 해결해주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마을 원로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은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 즉 WHAM(win the hearts and minds)을 COIN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적의 시체의 수를 헤아림으로써 작전의 성공을 평가하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가장 부족했던 측면을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이미 베트남에서 상당부분 효과를 본 내용이다. 다만 미 행정부가 바뀌고 전쟁의 목표가

24)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 op. cit.

25) 손석현, 『대반란전 전사연구』, 2016, p.265.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작은 기동에도 화력지원과 공중지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는 등 사상자 줄이기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미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 재직 말기부터 나타나다가 에이브람스 후임 사령관 시절 더욱 노골화됐다. 한국군이 적극적인 전쟁 개입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불평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미 국무성도 한국군의 효용가치가 투자비용에 비해 매우 낮다는 평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sup>26)</sup>

다섯째, 철군과정 및 조건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과 비전투원소개 작전(NEO)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한 후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베트남전 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갖는 불신은 더욱 확대됐고 미측 역시 한국의 반대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박정희 정부도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1969년 7월 15일 류병현 소장을 단장으로 철군 준비 예비 조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그러나 1970년 2월까지도 공식적으로 철군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철군에 대한 언급을 최초로 한 것은 1971년 1월 11일 대통령의 신년사이지만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도 조기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명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조기철수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라운 메모랜덤에 표기한 바인딩 조항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 군사원조계획(MAP)의 연장이 한국군이 최대 2개 사단을 현지에 두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했고, 특히 주력 2개 사단을 현지에 남겨둠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최대한 연기

26) 키신저 시절 미국의 주베트남 주둔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박태균, 「베트남 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베트남 전쟁사 연구 학술회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2013. 4. 26, p.23.

시키거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미측과 협의 중인 지원 목록(Kinds and Quantities List)을 작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27)</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 달랐다. 한측은 모든 목록에 대한 지원을 미측이 이미 약속했다고 판단했고 그 액수가 도합 40억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기대한 반면, 미측은 15억불에 해당하는 만큼만 미측이 구입하거나 무기로 양도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P.L. 91-441의 Section 502호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문제였다.<sup>28)</sup>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미측은 MASF(Military Assistance Service Funded Program)에 의해 지급된 장비는 베트남에서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29)</sup> 따라서 6개 연대 장비 중 2개 연대분만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나머지 장비는 현지에 남겨둬 남베트남군에 이양하고, 한국군은 귀국 후 새로 보상을 받도록 했다.<sup>30)</sup>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15억불에 포함되어 있다는 미측과 별도이관이 필요하다는 한측과 기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미측은 한국 공군의 F-5A기종을 베트남군에 이관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을 양국은 조속히 조율하고, 한국군 소유의 F-5 제공호 편대를 필리핀 내 클라크 미 공군기지로 이관한 후 다시 미조종사들에 의해 남베트남군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 공군은 신형 F-4E 팬텀기 편대를 13만 달러에 2년간 렌트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sup>31)</sup> 티우 대통령이 1972년 2월 8일 서울을 방문 한국군의 주둔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971년 12월부터 한국군의

27) U.S. Congress, Senate, *A Staff Report for Committee of Foreign Relations, Korea and the Philippines: November 1972*. (Washington, D.C.: GPO, 1975), p. 15.

28) Ibid., p.25.

29) Ibid.

30) Ibid.

31) Ibid., p.28.

철군을 시작했다. 청룡부대가 1972년 7월 4일 철군을 완료했고 한국군은 1972년 11월 8일부로 모든 전투 행위를 종료하고 후방지역으로 철수 철군 준비를 했다.<sup>32)</sup>

파리 평화협정이 1973년 1월 27일 체결되면서 우리 군은 1973년 3월 23일 철군을 종료했지만 많은 수의 교민들과 지상사원,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에 남아 있게 됐다. 그중 여권과 확실한 체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 남아있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불과 2년 만에 북베트남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사이공은 함락될 위기에 빠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해외 교민 철수 및 난민 수송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민 철수에 대한 계획을 급히 세워야 했다.

미국도 남베트남의 갑작스런 붕괴조짐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한 철수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미국인, 제3국인, 그리고 친미성향의 베트남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했다.<sup>33)</sup>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진 가능성과 남베트남 중부지역을 장악한 임시혁명정부군이 동진할 경우를 대비해 미해병대 병력을 동원, 남베트남 1관구 산하에 남아있는 미국인들과 제3국인들 및 친미 성향의 베트남인들을 해상으로 소개하는 계획을 만들어 군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대비했다. 특히 사이공 지역은 민간 항공기 또는 태국에 주둔 중인 미 제7공군의 군용기들을 동원해 탄손누트 공항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만약 탄손누트 공항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 사이공에서 해상으로 철수하는 안을 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했다. 만약 이

32) Kyudok Hong, *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p.236.

33) 조동준, “남베트남 패망과 비전투소개작전”,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십자성작전의 재조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베트남 전쟁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16. 5. 19, p.76.

모두가 불가능할 경우, 헬기로 사이공에서 해상으로 직접 제한된 인원을 이동시키는 실행계획을 만들었다.<sup>34)</sup>

우리의 경우 사이공 함락이 임박해서야 철수계획이 논의됐지만 탄손누트 공항을 통해 민간 항공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험성과 고비용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폐기됐다. 결국 해군의 LST함을 활용한 해상 철수계획을 만들어 1975년 4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남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 교민과 공관원들 외 남베트남 피난민들을 함께 철수시키는 계획이었다. 해군 상륙함 2척으로 구성된 '75 십자성 계획'에 따라 1척당 1,500명씩 약 10회를 왕복한다는 45일간의 작전계획이었다.<sup>35)</sup> 이에 따라 1975년 4월 26일 오전 구호물품의 하역을 종료한 LST 함선에 교민과 베트남 피난민들을 승선시켜 출항하게 됐지만 당시 이대용 공사 등 일부 공관원들은 합류하지 못했고 적지 않은 교민들이 베트남에 억류됨으로써 상당한 고초를 겪게 됐다. 함락의 위기상황 속에서 철수를 위한 작전이 순탄히 진행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다 포괄적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NEO 작전은 세계국가로 성장한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참전과정에서 우리 군에 의해 발생한 잔혹행위에 대한 고발 및 비판이다. 비판론자들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아픈 경험을 주류사회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기억을 거부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한겨레 신문이나 일부 진보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참전단체나 사회전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베트남 참전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점에 대한 자긍심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잔혹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억

34) Ibid.

35) Ibid., pp.87-96.

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엄격한 잣대를 취하는 태도와 매우 대조적이며 이 율배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갖는 기억의 편향성 내지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기억의 회피성을 지적함에 앞서 한국 참전자들의 잔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상황 하에서 마치 한국사회 전체가 잔혹행위 여부에 대해 일부러 쟁점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추론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경험한 60년의 시대상을 이해함이 없이 미국의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분위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석영의 소설 『무기의 그늘』에서 작가는 베트남전에 참가한 참전 군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계급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sup>36)</sup> 그러나 참전 군인들을 미국의 의도에 희생당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작가적 상상력에 의한 것이지 실제 파병 당사자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 참전자들의 문제인식은 결코 미국인들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제작한 미국 영화 플라톤(Platoon)류의 반전 성향의 영화장면에서 흔히 접하는 혼돈과 무질서, 반사회적 성향을 한국군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기준으로 앞선 시대의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를 재단하기 어렵듯이, 60년대 초 한국의 상황에서 전쟁참여에 대한 혐오감이나 반발심 내지 정부에 대한 원망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정체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고, 베트남전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간주되었다. 또한 순수한 애국심과 공산침략 하에 놓인 베트남인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정서가 공감을 얻던 시대였다. 6.25 참전국들의 희생에 대한 보은이 의심 없이

36) Hwang Sok-yong, *The Shadow of Arms* (Ithaca, NY: Cornell East Asia Program, Cornell East Asia Series 73), 2014, translated by Chun Kyung-Ja.

받아들여졌던 시대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헨리 비에넨(Henry S. Bienen)이 언급했듯이 전쟁은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케네디 대통령 당시 거부되었던 정책이 존슨 대통령 당시 기적적으로 수용된 사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주장은 결코 적합한 것이 아니다.

특히 많은 비평가들이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점에 주목한다. 이는 사실이지만 경제적 이득이 참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박정희 정부가 필요로 했던 것은 동맹국 미국의 관심과 지원, 동맹국으로서의 축원(blessing)이었다. 참전은 미국이 한국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협상의 카드였으며, 이를 통해 원조가 확대되고 미국이 우호적 분위기 하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확대될 수 있게 된 점이며, 이는 한국정부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군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거나 용병의 역할을 수행하며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자발적 참전을 단행한 한국군을 대리전을 수행한 꼭두각시(proxy)나 용병(mercenary)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이라 해도 결코 작은 동맹국가의 의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지배-피지배 관계(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의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37)</sup> 한국정부가 주도면밀한 목적과 계획, 국민의

37) Robert O. Keohane, "The Big Influence of Small Allies", *Foreign Policy*, No. 2 (Spring 1971), p. 162.; Chang Jin Park, "The Influences of Small States upon the Superpowers: United States-South Korean Relations as a Case study, 1950-1953", *World Politics*, 28:1 (October 1975), pp.95-117.; Astri Surke, "Gratuity or Tyranny: The Korean Alliances", *World Politics*, 25:4 (July 1973), pp.508-532.

지지와 성원 하에 8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병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이웃나라의 고통을 돕는다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고, 범세계적 공산 침략 하에 함께 대응한다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정신이 국민적 지지의 기저를 이루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16개 참전국들의 희생에 의해 위기를 넘긴 한국인들의 보은에 대한 책무와 자발적 의지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한국 참전자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베트남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군인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문제제기가 전쟁 마지막 기간에 미측으로부터도 있었지만 한국은 절대로 잔혹행위를 의도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채명신 사령관의 지침아래 주둔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대민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주민들의 편익을 돌보기 위한 위민정책을 매우 철저하게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시 베트남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베트남전은 전선이 따로 없고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경계가 모호한 게릴라 전쟁이자 대표적인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이었기에 불가피한 잔혹행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콩 측이 한국 주둔부대가 1969년 이후 미국의 주력부대가 모두 철군한 상황에서도 2개 사단이나 잔류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군 주둔지역을 대상으로 조기철군을 종용하는 차원에서 인민혁명본부에서 선무공작의 일환으로 한국군의 잔혹성을 선전하고 침소봉대한 측면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 이는 베트콩 노획문서들을 중심으로 제작한 비망록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다.<sup>38)</sup>

38) Trung Nhu Tang, et al, *A Vietcong Memoir: An Inside Account of the*

또한 미국 지상군의 철수를 종용하는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파병을 문제 삼고 한국군이 조기에 철군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미 의회에서 사이밍턴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많은 반전단체들은 미 행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활용한 한국의 주둔가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반전에 앞장섰던 퀘이커(Quaker) 교단의 경우 한국군 주둔지들을 대상으로 잔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기록이 있다.<sup>39)</sup> 그러나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인했을 뿐, 진위여부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당시 복무했던 지휘관들 역시 교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희생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일부 베트남 지방정부에서 여전히 한국군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김종욱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전쟁죄악 진상조사를 통해 한국군의 잔혹행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팡남성 디엔반 현은 투이보 촌에서 한국 청룡부대에 희생된 피해자 145명이 정확하게 한국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한다.<sup>40)</sup>

베트남전과 같은 비대칭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의도적인 잔혹행위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Vietnam War and Its Aftermath* (New York: Vintage Books, 1986), p. 202.

39) Diane and Michael Jones, "Allies Called Koreans: A Report from Vietna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April-June 1976), pp.58-72.

40) 김종욱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베트남의 인식과 반응에 관한 고찰」, 『베트남 전쟁사 연구 학술회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2013. 4. 26, p.66.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민족해방을 방해하는 외세의 개입을 적극 비판하는 비동맹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참전 행위 자체를 공격하는 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결코 용납지 않았다. 참전 지휘관들은 무기 노획이나 은둔지 파악을 위해 주변 마을을 탐사하고 수색하기는 했지만 민간인 대상 잔혹 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이러한 경우가 실제 발생했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sup>41)</sup>

따라서 비평가들은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잔혹행위에 대한 기억을 살리려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묻지만, 실제로 한국군 참전자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무더위와 정글이라는 극한 조건 하에서 무한희생을 강요당하는 전투 현장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가에 헌신했다는 참전세대의 긍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반공이 국시였고, 조국의 부름에 따라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참전한 젊은이들의 생각이었다. 한국 사회 역시 그들의 파병을 지지했고,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미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처럼 귀국 후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41) 이러한 점에서 일부 비판론자 중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많은 탐색 격멸작전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See Remco E. Breuker, "Korea's Forgotten War: Appropriating and subverting the Vietnam War in Korean popular imaginings", *Korean Histories*, 1:1 (2009).

## 4. 전략적 교훈: 끝나지 않은 도전

베트남 전쟁은 장장 30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우선, 베트남전은 많은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남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교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 안정된 반공정부를 사이공에 세우고자 했던 미 행정부의 시도는 트루만 이후 닉슨까지 번번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원조와 세계 4위의 군사력에 해당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심지어 보다 안정된 정부를 옹립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사주하여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했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안정된 정부를 구축할 수 없었다. 또한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민주주의를 외부로부터 이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한 박정희의 성공은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같은 유교문화권이고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에 대처하는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은 정통성을 결여한 인위적 정권교체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실패국가들과 취약국가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불안정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안정적인 정권을 만드는 작업은 미래 세대가 담당해야 할 매우 심각한 도전과제이다. 오늘날 유럽을 포함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의 발생과 테러의 위협은 결국 전쟁 및 분쟁지역의 불안정이 주된 원인이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안정된 민주정부의 구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권위주의 정부의 축출이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류는 큰 고민에 빠져 있다.

둘째, 정파 간 내분이 심하고, 무장 게릴라들이 암약하는 상황에서 안정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훈이다. 미국이 경험한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종합할 때, 가장 성공적인 대처방법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각종 복구사업에 종사할 민간요원들을 군의 지휘하에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베트남전에서 1966년 약 1,000여 명의 고문단이 5억 8,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평정사업에 종사하던 규모를 1967년 약 7,500명 수준에 15억 달러의 예산규모로 대폭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CORDS 즉 ‘민간 구호 및 지방개발 지원단’(Civilian Operations and Rural Development Support)을 국방성 산하에 배치,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기에 가능했다.

놀랍게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통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인들과 군지원이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이 여전히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04년 CPA(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이라크에서 해체된 후, 국가건설 사업이 군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 제대로 융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민간과 군이 융합을 함에 있어서 군의 주도가 어느 정도 우선할지에 대한 결심이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또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합참, 국정원 등 주요 기관들 간의 부처간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각종 무장 단체들의 테러가 정국 불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인질을 납치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과 SNS에 능하며 초국가적 연계를 갖고 활동하며,

특히 사이버 테러를 통해 국제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불사조 계획(Phoenix Program)은 무장단체나 게릴라들의 중심을 타격하여, 그들을 생포하거나 조직을 분쇄하고, 생포된 무장 세력을 민간사회로 환원시키는 사업이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잘못 운영됨으로써 인권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많았고, 오늘날 관타나모 미 해병기지나 해외에서의 CIA가 운영하는 포로수용소들에서 자행되는 인권학대 사례가 외부에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테러 및 반군 조직의 중심에 침투, 이들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첨단 정보능력과 특수전 수행능력은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베트남전은 이러한 대처방안 모색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 특수부대의 노력에 의해 약 8만에 가까운 베트남 요원들이 생포되거나 사살됨으로써 베트남 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던 점은 오늘날의 현실 세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오늘날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안정화 작전의 한계를 검토한다면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특수전 능력과 정보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군에 의한 전선전의 중요성은 영원한 가치를 갖지만 새로운 위협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확대된 현 상황 하에서 작전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민주적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민간인들의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모두 베트남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양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의 행위는 발달된 미디어에 의해 ‘비도덕적 전쟁’으로 낙인찍히며 실패하고 말았다. 무고한 양민들을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민보호’(population security) 전략은 베트남전 말기 클락 클리

포드(Clark Clifford)팀에 의해 제안되었다. 약 50만 명의 민병대가 베트남 내 전략촌에 배치되어 시민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산부족과 당시 사이공 정부의 운영미숙으로 인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오늘날 이라크전 상황 하에서 미국이 고전하는 이유도 결국 적은 병력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결국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국내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증원(surge)을 결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전방위 대반란전(Full Spectrum Counterinsurgency)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Shape/Clear/Hold/Build(여건형성/소탕/장악/구축)의 원칙하에 안보(security), 행정집행(governance), 개발(development), 정보(information)를 4대 목표 축으로 삼아 마을과 마을, 구역과 구역 간을 이 잡듯이 살살이 훑어가며 새로운 안정을 시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sup>42)</sup>

이라크전의 교훈이라면 첨단무기를 통한 전장의 신속한 제압만큼 후방 지역이나 대도시의 양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가들은 최근 ‘오일 스폿 전략’(oil-spot strategy)을 통해 무장반도들을 고립시키고, 안정화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먹지에 기름방울이 퍼져나가듯 안전지역을 서서히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잘 훈련된 병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변혁 내지 국방개혁의 명분하에 지나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미측 전략가들의 주문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은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당된다고

42) Todd Greentree “A Letter from Bagram”, *The American Interest*, 4:6 (July/August 2009), pp.17-19. Also *Crossroads of Intervention: Insurgency and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Central America* (2008)

경고하고 있다.<sup>43)</sup> 한반도에서 대반란전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며, 특히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부분이 국방개혁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44)</sup>

다섯째, 평화협상에 대한 교훈이다. 현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도 일부 동요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으니 유일한 대안은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5)</sup>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북폭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 하노이 당국에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타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 측에서는 어느 대통령도 힘이 있을 때,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하노이 측도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존슨이나 닉슨 모두 직업정치인으로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다. 선이 큰 행동을 통해 남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매우 강했다(big play philosophy). 그들은 하노이 당국의 비협조와 고집에 대한 보복심리가 매우 강했고, 실제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결국 평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미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반사적 효과를 득표로 얻고자 할 경우뿐이다.<sup>46)</sup>

43) Bruce Bennett, *OIF Lessons Learned: Implications for the ROK Army* (Santa Monica,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of RAND, 2004); 한용섭 역, 『이라크 전쟁의 교훈: 한국군에 대한 적용』, 육군 교육사령부, 2004.

44) Bruce Bennett, *A Brief Analysis of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Reform Plan* (Santa Monica: Rand, 2006)

45) 김영희,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 『중앙일보』, (2016.02.05).

46) 홍규덕,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통권 제1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존슨은 재선 출마 포기로 막을 내렸지만, 험프리의 당선 가능성을 위해 평화협상을 적극 주도했고, 닉슨은 국내정치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데탕트와 평화협상을 선택했다. 데탕트를 통해 중국과 평풍외교를 했고, 특히 소련과 SALT회담을 통해 재선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전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군부에 다탄 두 개발(MIRV)을 승인했고, 중국과의 밀월도 소련과의 평화협상도 단기간의 정치적 효과는 봤지만 잭슨-배닉 수정안(Jackson-Vanik Amendment)으로 인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sup>47)</sup>

키신저의 평화구상은 결국 사이공 정부를 포기하게 됐고, 하노이와의 비밀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화협상이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것은 하노이도 워싱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제네바회담의 경우나, 파리 평화회의의 경우에서도 시간을 벌거나 명분을 찾기 위함이지, 누구도 평화가 힘에 의한 국제질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민족 문제해결의 근원적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한다고 하나 주한미군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를 위해 평화협정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는 비핵화의 약속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맞바꿀 수 없다. 파리 평화협정이 결국 미국을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벗어나도록 해줬지만 사이공의 이해에 관계없이 베트남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 있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봉쇄(containment)에 대한 강박관념과 개입(intervention)에 대한 균형감각의 회복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47) Albert Carnesale and Richard N.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p.65-103.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연계와 팽창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단 조지 케난(George Kennan)과 해리 트루만(Harry S. Truman)이 봉쇄정책을 공식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 확립한 후에는, 후임 대통령들이 베트남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결코 포기하기 힘들었다.<sup>48)</sup> 역사에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의 가정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전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 경험에 현혹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 신드롬(Vietnam syndrome)을 통해 지나친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큰 교훈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세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봉쇄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합의를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베트남전은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보다 합의지향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주변 국가들의 자세와 역할이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당시, 연합행동(United Action), 존슨 당시 다국적 캠페인(Multi-Flag Campaign) 등을 통해 동맹국들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베트남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거나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sup>49)</sup> 그러나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될 경우에 대비, 미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안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보험정책으로 참전을 했으며, 적은 병력을 파병, 큰 효과를 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sup>50)</sup>

48) Ronald J. Stupak, *American Foreign Policy: Assumptions, Processes, and Projection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6).

49) Raymond Bonner, *Waltzing with a Dictator: Marcoses and the Making of American Policy* (New York: Vintage Books, 1988).

50) Gregory Pemberton, *All the Way: Australia's Road to Vietnam* (London: Allen & Unwin, 1987).

반면, 한국은 참전을 통해 미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고, 군사력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전략을 선택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파병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 1961년 11월 박정희 의장이 최초로 의사를 밝힌 후,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대한 원칙을 공식 확정한 1965년 4월 회의까지 3년 반에 걸친 집요한 노력 끝에 기회를 얻었다. 일단 미국이 확전을 결정한 후, 유능한 전투병력을 대규모로 파병 가능한 유일한 우방국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었다. 초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에 2009년 한미 전략동맹의 공동비전을 채택한 이후 한국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통해 미국과 공동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베트남전이 가져다 준 엄청난 피해는 흔히 통일의 당위성이나 제국주의와 초강대국들을 상대로 이겨낸 극적인 효과에 파묻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전쟁은 베트남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인접한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전역에 걸쳐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또한 미국을 포함 모든 참전국들 역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전쟁은 희생자를 불가피하게 양산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생이 불가피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국민들과 군인들을 평화와 자유 수호, 또는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대의명분하에 동원했고, 그들은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결정자들도 전쟁은 진정 불가피했는지, 또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나 국제사회 역시 그들의 희생의

의미를 진정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상처를 충실하게 보듬어 왔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며, 전쟁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잔혹한 스승이다.

아쉽게, 전쟁은 참여국 대부분에게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주지만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들을 양산한다. 한국전에서 일본이 그랬듯이, 베트남전에서 한국은 8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각종 경제차관과 군사원조의 연장, 자국기업의 진출과 기술 인력의 수출, 전투 부대원들의 전투수당 등을 얻어 냈으며, 이는 성장기 한국경제에 필요한 자양분 역할을 했다.<sup>51)</sup> 삼각무역을 통해 미국은 전쟁물자 중 한국이 수출 가능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줬고, 이러한 기회는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한국경제의 도약과 성공적인 산업화가 주변국의 전쟁에 참여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상업차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여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면, 베트남은 승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했고, 향후 10년간 극심한 가난과 경제침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베트남이 경제발전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캄보디아와의 전쟁 후유증을 극심하게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한반도가 다시 전장화된다면 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인지, 전쟁 당사자의 경제는 얼마나 더 파괴될 것인지, 주변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비교할 때 과연 재기가 가능할지, 누가 한국경제의 재건을 돕게 될지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51) 일본의 베트남 전 특수에 대해서 Thomas R. Heavens,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5. 맺음말

베트남전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논의자체가 부족했다. 그동안 참전이유를 밝히거나 참전과정 및 파병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참전자 개개인의 전투 경험과 우리 군이 주도한 1,175회가 넘는 대대급 이상의 수많은 작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황만이 전사의 일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그 과정에 담긴 수많은 스토리와 전략적 교훈들은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구술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참전자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전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쟁임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전이 우리 군의 비약적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특히 동맹국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달라지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미측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것도 결국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다.

물론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통일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만 한다. 국제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코 한반도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은 우리 군이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첫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우리 군이 지역적 역할을 담당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베트남전이 주는 전략적 교훈들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대반란전(COIN)에 대한 분석과 비전투원소개작전(NEO) 등의 교훈은 한반도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도전 과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우리들의 몫이다.<sup>52)</sup> 과거의 기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치유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베트남, 미국, 한국은 이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안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구가하고 있다. 오늘날 양국 관계가 증명하듯이 베트남전에서 경험한 분노의 상처가 새로운 협력의 파고를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대반란전, 베트남 전쟁, 한미동맹, 한국군, 비전투원소개작전

52) Ernest R. May, *Lessons of the Past: The Use and Misuse of Hist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ABSTRACT>

## Why the Vietnam War matters to South Korean Military?

Hong, Kyu-dok

This study explains why the South Korean experiences in the Vietnam war matter to the Korean military and security managers who carefully design for the future.

This study starts with analysing ten aspects of how the Vietnam War affect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articulates nine strategic lessons from the the Vietnam War. This study continues to explain how the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to the Vietnam war change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s a whole, and particularly, the perception of U.S. military leaders. The study concludes that participation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professionalization of South Korean military. This study also recommends that security managers must look closely on how the leaders in the 1960s and 1970s had dealt with COIN and NEO. They are two important areas that still have clear implications for preparing future contingencies.

Key words : counterinsurgency (COIN), the Vietnam War, U.S.-ROK alliance, South Korean military, Noncombatants Evacuation Operation (NEO)